

서 교육감, 2030 초선 전주시의원과 간담회

장병익·이성국·최서연·신유정
시의원과 교육 현안 청취 등 소통



서 교육감은 16일 오전 교육감실에서 전주시의회 2030 초선의원 4명과 간담회를 가졌다.

서거석 교육감이 전북교육 현안에 대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듣기 위해 전주시의회 초선의원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에 따르면 서 교육감은 16일 오전 교육감실에서 장병익(완산동, 중화산1·2동), 이성국(효지6동), 최서연(진북동, 인후1·2동, 금암1·2동), 신유정(조촌동, 여의동, 혁신동) 의원 등 전주시의회 2030 초선의원 4명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지역주민과 최일선에서 만나는 기초의원들을 통해 각 지역의 교육 현안을 청취하고, 젊은 세대의 목소리를 교육정책에 담아내기 위함이다.

시의원들은 이날 간담회를 매우 의미있게 생각하며, 그동안 전북교육청과의 소통이 어려웠는데 교육감이 직접 간담회 자리를 마련해 준 데 대해 고마움을 표했다.

이 자리에서 장병익 의원은 "기초의원과 교육청이 함께 일할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었는데 소통의 자리를 마련해 줘 감사하다"며 "거버넌스 구축 등 소통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주면 지역주민의 이야기를 전달하고, 민원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신유정 의원은 "혁신도시와 민성동의 폐립학교 문제가 심각하다. 특히 초등 저학년은 방과후에 들어가기도 힘들고, 방과후 공간 확보도 어렵다"면서 "학교와 학부모들이 여러 가

지 안을 고민하고 있는데 교육청에서도 관심을 가져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최서연 의원은 "우리 지역에 학교가 많은 반면 학생들이 지역을 활용하는 비율은 낮은 것 같다"면서 "학교 내부에서만 교육활동이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지역과 교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이성국 의원은 "학부모들을 만나

면 자녀 훈육을 어떻게 해야 할 지 고민하는 분들이 많다"면서 "전북교육청에서 학부모교육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녀교육이나 훈육 등의 강의를 제공하면 학부모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교육감은 "의원님 한분 한분의 소중한 이야기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다"면서 "지난 12년간 소통의 자리가 없어 매우 아쉬웠다. 앞으로는 전북교육 현안에 대해 지자체는 물론

의회, 대학과도 긴밀하게 소통하며 협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탄탄한 기초·기본학력의 토대 위에 학생들의 미래역량을 길러주는 미래교육과, 천 명의 아이에게 천 개의 길을 열어주는 학생 맞춤형 교육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면서 "전북교육의 발전을 위해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협력을 부탁드립니다"고 당부했다.

/장은성 기자

전주대, '공존의 인간학' 제8집 발간

'번역을 통해 본 문화 교류의 장' 주제 · 총 10편의 논문 수록

전주대학교 한국고전학연구소(소장 변주승)는 학술지 '공존의 인간학' 제8집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공존의 인간학'은 '공존의 인간학과 미래공동체'와 관련한 세계적 수준의 담론 선도를 지향하며, 탈유교사회의 인간학과 미래공동체에 대한 학제 간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지난 2019년 2월 창간호를 시작으로 연 2회씩 발간해 이번에 제8집이 출간됐다. 특히 2021년에는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

학술지로 선정되기도 했다.

이번 제8집에서는 '번역을 통해 본 문화 교류의 장'이라는 주제로 한 기획논문 3편과 일반논문 7편 등 총 10편의 논문이 수록됐다.

한편, 전주대 한국고전학연구소는 현재 '공존의 인간학' 제8집 발간(을 목표로 다양한 학문 성과를 모집 중이다.

수록된 논문은 전주대 한국고전학연구소(https://www.jjac.kr/ksk)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장은성 기자



전주교대 초등학교 스포츠강사 연수

16~19일 · 120명 강사 대상 실시

전주교육대학교(총장 박병춘)는 16~19일 4일간 초등 체육교육 내실화를 위한 초등(특수)학교 스포츠강사 연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는 초등(특수)학교 스포츠강사 120명을 대상으로 4개 분반

으로 나눠 운영된다.

특히 K집스타 프로그램 활용, 스텝 박스를 활용한 표현활동 등 흥미로운 내용을 다루는 교육과정뿐 아니라 계절형 수상활동지도 방법 및 생존수영에 대한 스포츠강사의 소양 연수도 함께 실시된다.

/장은성 기자

전북교육청, 2023 수능 시험 원서접수 18일부터 실시

9월 2일까지 · 출신 학교 · 관할 교육지원청에서 진행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원서접수가 오는 18일 시작된다.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오는 9월 2일까지 수능 응시원서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원서 접수는 본인이 직접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다만 대리접수는 장애인, 수험자, 군복무자, 입원 중인 환자, 접수일 현재 해외 거주자로 제한된다.

대리접수자는 시·도교육감이 요구하는 관련 증빙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졸업예정자는 재학 중인 고등학교에서 일괄 접수하며, 졸업자는 출신 고등학교에서 실시한다.

이와 함께 전북에 주소를 둔 검정고시합격자, 타시도 고등학교 졸업자, 기타 학력 인정자 및 시험 편의 제공 대상자(시각장애, 청각장애, 뇌병변 등 운동장애 등)는 현재 주소지 관할 교육지원청에 접수하면 된다.

도내 시험지구 교육지원청은 6곳이며, 관할지역은 △전주교육지원청-전주, 완주, 진안, 무주 △군산교육지원청-군산 △익산교육지원청-익산 △정

읍교육지원청-정읍, 고창 △남원교육지원청-남원, 임실, 순창, 장수 △김제교육지원청-김제, 부안이다.

지원자는 응시원서(접수처 제공)와 사진 2매(원서접수 기준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 규격 사진), 응시수수료, 신분증 등을 준비해 접수한다. 또 검정고시합격자, 기타학력인정자, 졸업자 중 거주지 이전 등으로 시험지구교육지원청에 접수하는 수험생은 주소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초본을 지참해야 한다.

특히 시각장애, 청각장애, 뇌병변 운동장애 수험생 중 시험편의를 제공받고자 하는 경우 장애인등록증 원본을

지참해 전주교육지원청에 방문 접수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북교육청 누리집을 참조하면 된다.

수험생의 안전을 위해 원서 접수처에서는 발열 체크, 마스크 착용, 손소독, 거리두기 등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해 진행 될 예정이다.

한편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은 11월 17일 실시되며, 성적통지표는 12월 9일 교부될 예정이다.

지난해 도내에서는 고등학교 재학생과 졸업생 등 총 1만7,280명이 응시원서를 접수했다.

수능 시험지구별 원서접수 관련 문의는 전주 270-6062, 군산 450-2642, 익산 850-8830, 정읍 530-3020, 남원 620-7831, 김제 540-2573으로 하면 된다. /장은성 기자

도교육청, 일반직공무원 국내 테마연수

19일까지 신청 접수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2022 일반직공무원 국내 테마연수를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스스로 계획하고 참여하는 자율적 연수를 통해 문제해결 능력과 책무성을 높이고 특히 다양한 직무능력 개발 및 자기개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이에 따르면 이번 연수는 일반직공무원 3~4명이 팀을 구성해 팀별로 연수주제를 정하고 주제에 적합한 지역을 선정해 진행하는 방식이다.

연수주제는 △전북청 미래학교 △북합문화시설 설립, 학생안전체험관 설립 △전북 에듀페이 운영·지원 △

시·도 교육청간 교직원 휴양시설 이용 활성화 등이다.

연수를 희망하는 일반직공무원은 오는 19일까지 연수계획서를 작성해 본청 총무과로 접수하면 된다.

다만 최근 5년 이내 국내 테마연수 대상자로 선정된 공무원과 올해 7월 1일 기준 재직기간이 1년 6개월 미만인 공무원은 제외된다.

주요 심사기준은 연수주제의 참신성 및 연수 결과 활용 가능성, 연수계획의 구체성 및 연수 일정의 충실도, 연수지역 선정의 적정성, 팀 구성의 적정성 등이다.

이후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9월 8일 최종 선발팀을 발표할 예정이다. /장은성 기자

전주매일 PDF 지면보기 서비스 www.jjmaeil.com에서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북극'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얼음의 손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